

중국 당대(當代)사회의 변화와 수치심

이희경*

[요약]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그 속에서 중국인들의 가치관과 감정 역시 빠르게 바뀌었다. 대다수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역사의 피해자라만 인식하고 있던 80년대에 바진의 『수상록』은 중국사회가 극좌노선으로 경도된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김으로써 지식인의 비판정신을 되살리고 있다. 1988년 방영된 다큐멘터리 『하상(河殤)』은 서구식 현대화를 이루지 못한 낙후된 현실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내었다. 90년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회자원의 재분배는 지식인들의 사익추구 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의 유행어 ‘샤하이(下海)’는 그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이 도덕적 측면에서 물질적 측면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즈음, 일부 지식인들은 상업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지식계를 비난하며 ‘인문정신’의 회복을 주장했다. 지식과 예술의 가치는 물질적 잣대로 가늠할 수 없으므로 순도자적인 태도로 그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얻었으나, 지식인의 생존 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도덕적 입장만을 강조하며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상업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21세기 중국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은 정신적 가치들을 제치고 가장 실제적이고 유일한 욕망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느끼는 수치심 역시 물질생활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데, 위화의 소설 『형제』와 산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는 물질의 소유여부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린 현 중국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내준다.

【주제어】 수치심(부끄러움), 수상록, 하상(河殤), 인문정신, 위화, 귀징밍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6)

I. 들어가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2006년 5월 22일, 중국 문화계 인사들과 상당수 청소년들의 이목이 베이징 시고급인민법원의 한 판결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귀징밍(郭敬明)을 상대로 여성작가 좡위(莊羽)가 낸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었다. 2003년 12월, 좡위는 귀징밍의 두 번째 장편소설 『꿈속에서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夢裏花落知多少)』가 자신의 소설 『울타리 안팎(圈裏圈外)』을 표절했다고 고소했는데, 2년 동안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할 수 있었다. 귀징밍과 춘풍문예출판사(春風文藝出版社)는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20만 위안을 배상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23세의 젊은 작가 귀징밍은 법원의 판결을 절반만 이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배상금은 지불했으나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¹⁾ 2006년 6월 5일, 귀징밍은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절대로 강요에 몰려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작할 때의 고통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내 글을 좋아해주는 모든 이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²⁾ 이 글에는 8천 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클릭횟수만 16만 번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팬들의 반응은 대부분 “설사 샤오쓰(小四: 팬들이 귀징밍을 부르는 애칭)가 표절을 했더라도 샤오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예요”, “온 세상의 글이 다 표절인데, 능력이 있으면 덕도 베풀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보시지!” 등처럼 그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1) 「郭敬明被判抄襲拒不低頭 莊羽“強行”索要道歉」, 『華商報』, 2006年 6月 17日.

2) 「郭敬明回應抄襲一案 明確表態絕不道歉」, 『新華網綜合』, 2006年 6月 7日.

었다. 표절사건을 계기로 귀정밍이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예상과는 달리 팬들의 신뢰와 지지는 오히려 더 견고해진 듯 보였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기행(奇行)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귀정밍의 행동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07년 9월, 그는 원로작가 왕명(王蒙)과 문학평론가 천샤오밍(陳曉明)의 추천을 통해 중국작가협회의 정식회원이 되기에 이른다.³⁾ 정식회원 선정에 엄격한 문학적,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작가협회가 오히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표절 스캔들의 주인공을 받아들인 사건은 많은 문인들과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⁴⁾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귀정밍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된다. 명백한 도덕적 결함을 지닌 작가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기는커녕 특정 독자층에게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독자층의 경제적 구매력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문화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귀정밍 현상’을 경험한 중국인들, 특히 지식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존의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의 분석을 시도한 논문, 평론들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이 일본이나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과 80년대 이후 출생한 외동세대의 심리적 특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시도했듯이, ‘귀정밍 현상’에 대한 이해는 90년대 이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중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및 문화 생산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성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한데, 이 현상이 상당수 중국인들의 가치관과 감정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귀정밍과 그의 팬들이 자신들의 감출 수 없는 잘못, 즉 표절

3) 「郭敬明正式加入中國作協」, 『京華時報』, 2007年 9月 25日, 第29版.

4) 귀정밍 표절 사건과 관련된 당시 중국사회의 다양한 반응은 이희경, 「귀정밍 현상과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 『중국현대문학』, 제69호 참조.

행위와 표절 작가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지, 또는 어쩌서 그 부끄러움을 표현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아해했다. 사실 80년대 이래 중국 당대사회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면 귀징밍 키즈들의 전혀 새로운 ‘감정’은 언젠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변의 과정을 거쳐 온 중국 사회 속에서 중국인들의 수치심이 어떻게 전이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통’을 부끄러워하는, ‘전통적 양심’의 계승자들: 80년대 지식인의 수치심

1978년 12월 소집된 ‘중공 11기 3중전회’는 중국 당대사회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공산당은 개혁개방 노선을 제시하고, 당의 업무를 ‘사회주의 현대화’⁵⁾ 건설에 집중하도록 건의하였다. 정치 슬로건으로는 사상해방(思想解放), 지식발휘(開動腦筋), 실사구시(實事求是), 일치단결하여 앞을 향해 나아간다(團結一致向前看)로 확정하여 마오쩌둥 시대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3중전회는 과거사에 대한 평가에도 획기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문혁발발에 대한 마오의 과오를 부분적이거나 인정하여 여러 정치 사건과 인물에 대한 복권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를 전후로, 4·5 천안문 사건과 덩샤오핑(鄧小平) 비판 문제가 해결되고, 류샤오치(劉少奇)와 우파분자들의 명예회복이 뒤를 이었다. 1978년 말 부터 1981년까지 반동으로 몰렸던 당 내외 수많은 인사들의 복권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고인이 된 당원 및 문인들의 명예회복 차원의 추도회도 전국 각지에서 거행되었다.

개혁개방의 물결과 함께 시작된 80년대는 중국지식인에게 있어 5·4 신문화

5) 농업·공업·과학기술·국방의 4개 현대화를 뜻함.

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르네상스 시기였다. ‘사상해방운동’, ‘문화붐(文化熱)’은 이 시기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계급적으로 낙인찍혀 타도나 개조의 대상이었던 지식인들이 단순한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정책 담론의 제공자로, 인민의 다양한 갈망을 표출해주는 대변인으로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지식인의 위상 제고와 발언권의 확대와 같은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과거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각종 폭력에 대한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가운데 표출된 분노와 억울함은 많은 지식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감정이었으나, ‘수치심’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문화대혁명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사건의 피해자라는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 경험했던 부당함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비단 지식인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초기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피해의식과 분노가 목전의 정치권력을 향하지 않도록, 공산당은 문혁의 궁극적인 책임은 ‘사인방’과 ‘린바오(林彪)’에게로 국한시켰고, 반우파투쟁·대약진운동과 같은 역사적 오류는 당의 집단지도와 민주집중제의 원칙이 훼손되어 마오라는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규정지었다.⁶⁾ 언뜻 보기에는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같지만, 실은 중국 당대사 비극의 원인을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세상을 떠난 국가 지도자에게 한정시킴으로써 덩샤오핑 치하의 공산당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본질적인 책임은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마오 평생의 업적을 ‘功七過三’으로 규정하여 그의 혁명 업적들이 ‘문화대혁명’ 중의 과오보다 훨씬 월등하다⁷⁾고 평가한 것 역시 마오로 대표되는 공산당의 혁명적 정통성은 계승하되 그 역사적 과오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당시 정치권력의

6) 解放軍政治學院資料室·解放軍報編輯部 (1981), pp. 14-18, 21-29.

7) 解放軍政治學院資料室·解放軍報編輯部 (1981), p. 35.

속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억울함, 희망과 자신감이 혼재된, 다소 복잡한 심리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지식인의 부끄러움을 논한 보기 드문 작품이 바로 바진(巴金)의 『수상록(隨想錄)』이었다.

『수상록(隨想錄)』은 1930~40년대 젊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나키스트작가 바진이 만년에 남긴 수필로, 1978년 말부터 1986년 7월까지 홍콩 『문화보(文匯報)』에 연재되었다. 사상해방운동의 백과사전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작품은 개혁개방 이후 80년대 중국사회의 격렬한 변화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역사 회고를 통해 지식인의 양지(良知)가 어떻게 상실되었는지 기술함과 동시에 현재의 시점에서 지식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글이기도 하다.

바진은 총 5권으로 구성된 『수상록』 제1집(1978년 12월~1979년 8월)에서부터 린바오나 ‘사인방’ 같은 인물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조건이 마련된 데에는 지식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식인의 탄압의 역사에 공모했던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회상하며 뼈아픈 후회를 토로한다. 1957년 반우파 투쟁 당시 평쉐핑(馮雪峰: 시인이자 문예이론가. 인민문학출판사 사장 및 작가협회 부주석 등을 역임했으나, 1957년 우파로 몰렸고, 문혁 기간 내내 고초를 겪다 1976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비판 참여에 대한 회고는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바진은 “그가 어떻게 우파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단 위에 올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소위 ‘반동’들과 선을 분명히 그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강요당했던 억압적 분위기에 대해 기록하면서도, 바진은 “자신을 보전하고 싶었던” 내면의 비겁함을 함께 기술하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는다.

8) 陳思和 (2008), 「從魯迅到巴金: 『隨想錄』的淵源及其解讀」, 上海巴金文學研究會編, 『細讀隨想錄』, p. 44,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22년 동안 쉐핑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발언을 생각하면, 마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 나는 스스로를 책망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 익숙했는데, 갑자기 큰 고함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아보니 그토록 많은 원혼들이 뒤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나 자신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상록』 제1집의 부끄러움과 참회의식이 과거 문예계에 함께 종사했던 동료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치중되었다면, 제2집(1979년 9월~1980년10월) 이후부터는 이러한 감정이 지식인 그룹과 사회 전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년의 대재난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짐승’으로 변했는가? 어찌 됐든 그 실마리를 찾아내야겠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상처도, 나의 상처도 찾아낼 것이다. (……) 십 년의 경험을 총결할 때 나는 모든 책임을 ‘사인방’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냉정하게 생각한다. 나 자신이 ‘사인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 앞에 고개 숙이며 무릎 꿇고 기꺼이 그들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했었는데, 내게 책임이 없단 말인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단 말인가!⁹⁾

(문혁 기간 조반파의 감시와 탄압 아래 끊임없이 사상개조를 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 시기, 나는 오로지 ‘조반파’가 항상 높이 외치는 구호와 반복하여 선전하는 ‘진리’를 따라 사고할 따름이었다. 나에게는 스스로의 생각이 없었다. (……) (‘조반파’조차도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나는 다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내가 바로 ‘마음이 노예인 자’이며, 철저한 정신적 노예였던 것이다. 이 발견은 나를 무척 괴롭혔다. 내 마음은 발버둥을 쳤다. 노예철학이 쇠사슬 마냥 온 몸을 퐁퐁 묶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었다!¹⁰⁾

9) 巴金 (1980), pp. 130-131.

10) 巴金 (1981), pp. 132-133.

11) 巴金 (1983), p. 46.

타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바진은 관료주의·부패문제, 문예창작의 자유, 문혁기념관 설립, 교육, 5·4신문화 정신 계승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독특한 의견을 피력할 뿐 아니라, ‘중국현대문학관’ 설립, 관방으로부터 비판받는 작가들에 대한 지지 표명 등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보여준다. 이 원로작가의 역사 반성과 참회는 관방과 일부 지식인의 반발에도 부딪쳤지만,¹²⁾ 대다수 지식인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 일으켰다.

바진의 실천적 면모와 그에 대한 지식인들의 동조는 이들의 역사 반성 가운데 등장하는 부끄러움이 사회의 양지(良知)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 중국 지식인의 자아의식과 우환의식을 80년대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혁 시기 “선비는 차라리 죽일지언정 욕을 보여서는 안 된다(士可殺不可辱)”는 관념이 철저히 파괴되는 경험을 거치긴 했지만, 사상해방의 시기를 거치며 중국사회는 다시 한 번 지식의 필요성과 지식인의 존재가치를 긍정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한 후에야 비로소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범중엄(范仲淹)의 고아한 정신이나,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천명을 세우며, 과거의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통을 잇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命, 爲往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고 한 장재(張載)의 원대한 포부는 역사 회고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해가고 있던 80년대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다시 계승되고 있었다.

바진의 『수상록』이 과거를 뒤우치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하는 과정 중에 사회의 양심과 지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부끄러움을 표현했다면, 서구식 현대화를 이루지 못한 중국의 낙후성을 인식한

12) 그 대표적인 인물로 원로 공산당원 작가인 샤옴(夏衍)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참회’할 것이 없다”라는 말로 지식인의 참회를 촉구했던 바진에게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했다. 陳堅·陳抗 (1998), p. 598.

데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이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난 것은 바로 『하상(河殤)』이었다. 1988년 6월 CCTV에서 방영된 6부작 다큐멘터리 『하상』은 중국문명의 요람인 황하를 “황폐한 모국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완고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로 의인화하고,¹³⁾ 매일 부딪치는 중국의 낙후된 현실과 더 이상 새로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노쇠한 문명에 대해 끊임없이 한탄한다.

중국의 문명은 결국 쇠퇴하고 말았다. 풍부한 역사, 유구한 문명은 이제 모두 과거의 이야기다. (……) 한 자동차회사 공장장이 천안문의 성루 위에 서서 장안가(長安街)를 오가는 차량을 한 대 한 대 헤아렸는데, 그 수가 백 대가 될 때까지 국산차는 3대 뿐이었고 나머지 97대는 모두 외제차라고 하였다. (……) 역사와 현실은 바로 이렇듯 냉혹하게 우리를 조소하고 있다.(제1편 꿈을 찾아서 [尋夢])¹⁴⁾

굴원과 이백을 낳았고, 4대 발명품을 창조하여 천년 이상이나 세계의 지도적 위치를 지켜왔던 걸출한 민족과 그 뛰어난 문명이 무슨 연유로 이 지경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앞으로 몇 대나 더 연속되어야 한단 말인가?(제3편 신령스런 빛 [靈光])¹⁵⁾

수치화된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언급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가운데 중국인의 빈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세계은행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민 총생산량은 128개국 중 언제나 뒤에서 20위 전후를 맴돌고 있어 소말리아·탄자니아 같은 아프리카 빈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985년 국민총생산량은 일본의 1/5에 불과하다.¹⁶⁾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세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은, 각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장차 “지구상에서 제명되어 버릴지도 모른다”¹⁷⁾는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13) 蘇曉康 (1989), p. 270.

14)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45.

15)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89.

16)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p. 103-104.

17)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104.

그러나 『하상』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움은 단지 국제사회의 범주 속에서 발견되는 상대적 빈곤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이 직면한 내적 위기, 즉 인민생존에 대한 해결책의 부재로 인한 부끄러움이다. 80년대 내륙지역 인민들의 삶은 지난 몇 십 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큐멘터리의 화자는 이 빈곤의 궁극적 원인이 마오시대의 비과학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있음을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인을 먹여살리느냐에 있다. 1980년에 이르기까지 난주시蘭州市에서 겨우 40km 떨어진 한 인민공사에서는 일인당 배급량이 40 내지 100근이었으며 농민의 3분의 2가 온돌 위에 자리를 깔지 못하였고, 60퍼센트 이상이 겨울에도 솜옷이 없었다. (……)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다, 사람이 많으면 힘도 커진다”는 지혜롭지 못한 견해로 말미암아 적은 토지가 더욱더 귀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자원으로 더욱 모자라게 되었다. 척박한 토지에 긴장한 노동력은 많아, 먹이를 기다리며 슬프게 울부짖는 생명들이 도리어 천하게 되어버렸다.¹⁸⁾

먹고 사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 백년에 걸친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하상』은 적극적인 대외 개방, 지식인의 처우 개선,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발전, 관료주의·특권사상에 의한 부정부패 청산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80년대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했던 서구식 현대화를 구체화한 것들이다.

식퇴하는 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활짝 열고 대외적인 개방을 하여 과학과 민주의 새로운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제2편 운명 [運命])¹⁹⁾

이십 세기 중국의 지식분자는 지금에 와서 비록 ‘취노구(臭老九: 냄새 나는 9등 인간이란 뜻으로 지식인을 폄하하는 말)’의 액운을 면하게 되어 신분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궁핍과 정신적인 억압이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 더욱 두려운

18)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101.

19)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68.

것은 孔夫子의 위패가 가장 존중되는 오랜 문명의 나라에서 교사의 지위가 아주 비천한 지경으로 곤두박질하여, 구세대는 이미 촛불이다 타들어가고 기름등이 꺼지려 하나, 신세대는 다시는 그들의 뒤를 좇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의 위기는 중국의 가장 긴박한 위기가 되었다.(제3편 신령스런 빛 [靈光])²⁰⁾

또 다른 하나는 황하유역에서 상품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품경제는 자연스럽게 발육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발육 과정이 시장을 형성한 뒤에, 국가가 조절하는 시장, 즉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완비된 시장을 조절하는 겁니다. (……) 이렇게 하여 소유제 개혁과 시장의 발전이 함께 결합된다면, 황하유역의 경제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제4편 신기원 [新紀元])²¹⁾

더욱 경시할 수 없는 것은 관료주의와 특권사상이 국부적인 부패현상을 초래하여 여전히 우리의 ‘4화(四化)’의 원대한 계획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제5편 우환 [憂患])²²⁾

『하상』은 ‘중국/서구’라는 이분법 구도에 입각하여 양대 문명을 비교하고 있다. 황색으로 상징되는 중국은 육지에 갇힌 정체되고, 봉건적이며, 생명력을 다한 농경문명으로 그가 처한 거의 모든 상황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청색으로 상징되는 서구는 세계를 향해 열려있고, 젊음·모험·에너지가 충만하며, ‘민주와 과학에 대한 희망을 수송하는’ 해양문명으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롤 모델이다. 기존의 중화주의를 철저히 반성하고 서구의 선진문명을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내용의 『하상』이 서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창조하고 전파했으며, 이는 정치적·문화적으로 동기 부여된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옥시덴탈리즘이라고 명명될 소지가 농후하다.²³⁾ 또한 ‘서구식

20)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p. 90-91.

21)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107.

22)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127.

23)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옥시덴탈리즘』의 저자 샤오메이 천(陳小眉)가 『하상』의 옥시덴탈리즘적 특징을 논하면서도 이 다큐멘터리가 관련 이데올로기의 억압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서양적 타자를 수용한 반관반 담론의 전형적인 예임을 강조하며, 서양이란 이미지의 전유가 『하상』에서처럼 국내 지배 이데올로기의 체계

현대화’에 대한 지식인의 지나친 낙관주의가 시장경제체제가 본격화된 90년대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당시 낙후된 중국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부끄러움과 인민의 기본생존권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상』을 통해 전달된 지식인의 현실에 대한 각성과 ‘서구식 현대화’에 대한 호소는 각계각층에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다. 방영 이후 『하상』 대본 작가들은 대본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편지를 수천 통이나 받았고, 그 결과 이 다큐멘터리가 중국 문화에 대한 비방이라 하여 방영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달 후 황금 시간대에 재방영되는²⁴⁾ 이변이 일어났다. 『인민일보』, 『광명일보』, 『중국청년일보』, 『경제』, 『문화보』, 『북경청년』 등의 주요 신문들이 앞 다투어 대본을 게재했으며, 열정적인 독자들은 대본을 손으로 베껴 돌려볼 정도였다.²⁵⁾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22일, 『하상』 해설문 단행본의 출판 기념회가 베이징 삼미서옥(三味書屋)에서 거행되었고, CCTV 국제 서비스 센터에서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하였다.²⁶⁾ 이처럼 뜨거운 반응은 중국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각성과 그 가운데 드러난 민족적 수치심을 대중이 가까이 공유하며 ‘서구식 현대화’라는 해결책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개별적 수치심이든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난 집단적 수치심이든, 80년대 중국사회에서 엿볼 수 있는 지식인의 수치심은 모두 전통적 자아의식에 기반을 두면서, ‘서구식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80년대 지식인들이 계승한 전통적 지식인의 우환의식과, 전통을 전면부정하고 ‘서구

모니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사용될 때 긍정적이고 해방적이며 심지어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녀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 같은 용어들의 사회적 결과들이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하며 문화적 담론의 본질주의화에 반대한다. 샤오메이 천 지음, 정진배·김경아 옮김 (2001) p. 51, p. 81.

24) 샤오메이 천 지음, 정진배·김경아 옮김 (2001), p. 52.

25) 샤오메이 천 지음, 정진배·김경아 옮김 (2001), p. 69.

26)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p. 159.

식 현대화’를 주장하는 사상적 지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5·4 신문화운동 시기와 80년대의 지식인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 『수상록』에 드러나는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의식은 반식민지 조국에 대한 5·4 지식인들의 고뇌와 겹쳐지며, 『하상』에서 구체화된 80년대 지식계의 서구식 현대화로의 충실한 지향은 5·4신문화운동의 주창자였던 후스(胡適)가 반쯤 죽어 있는 문화를 구하기 위해 문화 건설의 재료를 근대서구에서 구해야 한다²⁷⁾고 강력히 주장했던 ‘전반서화(全盤西化)’를 떠올리게 한다. 이 두 세대 지식인들은 모두 ‘서구식 현대화’를 지향함으로 중국의 오랜 전통을 거부하면서도, 전통 지식인의 우환의식을 그대로 계승하는, 전통을 부끄러워하는 전통의 계승자들이었다.

5·4 이후 60년 만에 지식인의 윤리적 태도와 사상적 지향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으나, 이 지식인의 황금기는 “경제 개혁을 위해 서양의 과학과 기술만 원할 뿐, 서양의 정치나 법률제도들은 전적으로 거부했던”²⁸⁾ 덩샤오핑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물과 기름처럼 융합될 수 없었던 지식인과 공산당사이의 갈등은 6·4 천안문 사건으로 극에 이르렀고, 이후 중국 지식계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였다.

Ⅲ. 가리워진 수치심과 공개된 수치심: 90년대 ‘샤하이(下海)’현상과 인문정신논쟁

활력이 넘치고 희망에 가득 찼던 80년대가 꿈처럼 사라진 후, 중국 지식인들은 불안과 허망함 가운데 90년대를 맞이한다. 6·4 이후 개혁개방의 고삐를

27) 胡適 (1998), pp. 514-515.

28) 샤오메이 천 지음, 정진배·김경아 옮김 (2001), p. 74.

다소 늦춘 듯했던 공산당은 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개방 원칙을 재천명하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80년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90년대 중국의 특징은 바로 ‘시장경제’가 ‘사상해방’을 대신하여 ‘개혁’의 주요 형용사가 되었다²⁹⁾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사상·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반면, 상업문화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온 국민의 이목이 ‘경제’에 집중되도록 유도했다.

‘남순강화’ 이후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권력과 결합된 자본의 급격한 형성이었다. 6·4 이후 약 10여 년 동안, 당의 정책에 대한 민간운동의 저항이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결합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었다.³⁰⁾ 당시 사회자원의 재분배 과정에 참여했던 지식인들 역시 나름의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90년대의 유행어 ‘샤하이(下海)’는 그들의 사익추구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준다. 대학, 국가 연구기관에 종사하던 많은 지식인들이 시장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비즈니스의 세계로 뛰어들었고, 그 중 일부 인사들은 연구기관에 소속된 기존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돈벌이에 열중하는 퇴행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 시기 비즈니스로 전향한 다수의 지식인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신흥 엘리트 계층으로 부상하였다.³¹⁾

중국이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을 때, 일부 지식인들은 걱정스런 시선으로 거대한 상업화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90년대 전기 중국지식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인문정신’ 논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1993년 『상하이 문학』 제6기에 실린 상하이 문학연구자들의 대담 「광야

29) 왕샤오밍 지음, 김명희 외 옮김 (2014), p. 35.

30) 첨리첸 (2013), pp. 41-42.

31) Ka-ho Mok (1998), *Intellectuals and The State in Post-Mao China*, pp. 204-226, New York: St. Martin's Press, 이문기 (2009), 「중국 지식인과 국가 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중국학연구』, 제47집, p. 207에서 재인용.

위의 폐허—문학과 인문정신의 위기』는 ‘인문정신’ 논쟁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글이었다. 이 대답에서 왕샤오밍은 “중국 특색이 풍부한 ‘상품화’ 흐름이 문학계를 거의 뿌리 채 뽑아내려고”³²⁾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대중문화의 소양이 보편적으로 하락한 오늘날 문학의 위기는 중국인의 인문정신이 위기를 맞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³³⁾이라고 지적했다. 장홍(張宏)과 쉬린(徐麟)은 이러한 문학의 위기, 지나친 쾌락에의 추구의 예로 각각 작가 왕쑤(王朔)와 5세대 감독 장이머우(張藝謀)의 작품을 들고 있다. 이들은 왕쑤 작품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가벼움과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비판의식을 없애고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천하고 쇠약한 생명의 표징을 나타낸다³⁴⁾고 주장한다. 또한 장이머우의 진정한 쾌감은 기교에 대한 장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³⁵⁾ 오늘날 어떤 생존방식도 해체하지 못하고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구조도 없는 중국의 ‘놀이판 문학’가들의 ‘유희’적인 작품들의 쾌락 속에서 인문정신은 상실되어 간다고 한탄한다.³⁶⁾

인문정신의 위기에 대한 추이이밍(崔宜明) 발언은 90년대 지식인들이 느끼는 수치심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바야흐로 선진(先秦)시대에 견줄만한 가치 관념의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라 전체 인문정신의 영역이 모두 쇠락한 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품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가져다준 충격 속에서 궁박한 중국인들이 뿔뿔이 돌진하고 있고, 많은 문화인들은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산란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놀랍니다. 자신의 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자존적인격도 없습니다. 보다 내재적인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스스로 만족하여 편안하며 정신생활은 필요로

32)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89.

33)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90.

34)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92.

35)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96.

36)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99.

하지 않으니, 인문정신의 위기라는 것도 알고 보면 문화인들의 생존 위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³⁷⁾

‘인문정신’의 위기를 ‘문화인의 생존 위기’로 인식하는 세태는 80년대 시대의 선도자이자 양심을 자처했던 지식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로 추락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무엇과 직결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90년대 초반 중국 지식인들의 생활수준은 80년대에 비하여 크게 향상된 바가 없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1년 정신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육체노동자에 비해 7.6% 낮았고, 1992년 교육 종사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2,737위안으로 국민경제 12개 부문에서 10위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연구원의 월수입이 500위안이 못되고 박사생의 기본 월급이 140위안인데 비해 베이징 중싱가 공중화장실 요금 수납원의 월급은 200위안이었다.³⁸⁾ 택시 기사나 사기업 직원의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급여는 수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외부 회사에 겸직을 하거나 대중 저질 문화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유행처럼 번진 ‘샤하이(下海)’ 열풍은 90년대 지식인들이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국가권력의 처참한 폭력을 경험한 지식인 중 대다수가 더 이상 조국의 민주화나 공공자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들지 않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자유는 ‘물질’생활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정치와 사상의 언로가 막힌 상태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해결책 역시 ‘상품경제’ 뿐이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엄을 새롭게 평가해 줄 시대정신을 따라 이들은 스스로를 비즈니스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90년대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지식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느껴야 하는 것으로 ‘물질’생활의 궁핍을 드러내준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처지를 뻔히 알고 있었을 인문정신 논자들이 경제적

37)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111.

38) 祝華新 (1993), 「當代中國文化生態環境透視」, 『東方』, 창간호, 이성규 (1996), 「현대 중국 지식인의 위상」, 『지역연구』, 5(1), p. 146에서 재인용.

궁핍 때문에 느끼는 지식인의 수치심이나 구체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중 화장실 요금 수납원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 지식인이 어떻게 자신의 업을 자랑스럽게 여겨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문화예술의 범주 내에 국한시켜 도덕적 차원에서만 논하려 했다. 인문정신 논자들은 순도자(殉道者)의 태도로 상업화의 충격 아래 인격과 정신의 지조를 잃어버린 문화인에 대한 경멸과 지식인인 자신들에 대한 숭고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또 엄혹한 시대를 만났고, 이 사회에는 누군가 마음을 굳게 먹고 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순도자를 자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을 연구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미국에서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칭 ‘감히 죽음을 무릅쓰는 대오(敢死隊)’라고 한다더군요. 수학 교수의 연봉이 가장 낮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 수학계가 여전히 세계 수학 발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을 국학으로 하는 미국이 이럴진대, 도에 뜻을 두는 것을 국학으로 삼는 중국에 이런 ‘감사대(敢死隊)’의 정신이 없어야 되겠습니까?³⁹⁾

추이이밍은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이 물질생활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위상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조류에 밀려 도(道)를 포기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세속적인 선택과 풍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태에 좌우되지 않는 지식인의 지향할 바, 즉 인문정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 중 장루룬(張汝倫)은 인문정신의 상실이 사상문화에 미친 영향이 비단 오늘날의 현상이 아님을 지적한다.

39)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113.

지난 1백 년 동안 경전의 지위에 오를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문화 작품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진땀을 흘릴 것입니다. (……) 지식인 자체로 보면 그들이 보유하고 인문정신이 점차 희박해진 점과 마침내 그것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진정한 인문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학문 영역에 구현해간다면, 그 경지는 스스로 높아지고 학문적 골조는 스스로 거대해질 것입니다.⁴⁰⁾

장루룬이 느끼는 부끄러움 역시 인문정신의 부재로 인한 사상문화 상의 빈약한 업적에 있지, 지식인의 물질기반의 열악함과는 상관이 없다. 이처럼 인문정신 논자들의 의식 속에는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 즉 “도에 뜻을 두고(志于道)”, “천하의 안위를 자기의 소임으로 여겨(以天下爲己任)” 사회의 도덕률을 제시하는 양심으로서의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문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식인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강조와 물질기반에 대한 흠시는 그들이 유가적 전통 지식인의 도덕적 기준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반영할 뿐 아니라, 49년 공산화 이래 지식인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1942년 연안(延安)에서 “비록 그들(노동자·농민)의 손은 시꺼멓고 발에는 소똥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지식인들보다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지식인이 “사상감정을 변화시켜야 하며 개조해야 한다”⁴¹⁾고 단언했던 마오는 집권기간 내내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실천해갔다. 그는 강력한 사상개조 운동을 통한 지식인의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추진했고, 문혁기간에는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이르게 되었다. 1981년 6월 당 11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의』에서 지식인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뽀뽀부르주아 계급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노동자 농민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역량으로 인정되었으나,⁴²⁾ 수 십 년에 걸친 사상주입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40) 왕효명(王曉明) 외, 백원담 편역 (1999), p. 67.

41) 毛澤東 (1991), p. 851.

노농계급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여전히 갈등을 느끼게 하였다.

관료주의·비민주적인 정치현실·시장경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이 모두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진행된 본 논쟁은 논자들의 비판의 날이 지식인과 문화현상에만 집중되도록 하였다. 지식인들에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남겨진 유일한 영역이 문화예술 분야였기 때문이다. 이 제한된 범주 내에서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 입장에 기대어 90년대 시장경제의 충격과 싸우려했던 ‘인문정신’ 논쟁은 다양한 입장의 동조자와 반대자들의 논박 속에서 약 2년 여간 지속되었으나, ‘인문정신’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갔다. 인문정신 논자들은 전통적 지식인의 입장을 견지하며 표면적으로는 90년대 중국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냈으나, 은연중 이미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수치심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논쟁 당시에는 물질로 인한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논자들은 없었으나, 이미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샤하이’ 현상은 이 부분의 수치심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하였다.

IV. 위화(余華)를 통해 바라본 중국사회: 2000년 이후 만연된 물질지상주의와 수치심

‘인문정신’ 토론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왕샤오밍은 도덕적 당위성만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90년대 후반부터 학문적 관심을 문화로까지 확장시켰다. 그의 이 같은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새로이 등장한 지배적인 문화생산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 넓은 의미의

42) 解放軍政治學院資料室·解放軍報編輯部 (1981), p. 51.

문화연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현실 파악에 더 적합하다”⁴³⁾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1999년 『상하이문학』 제4기에 발표한 『반쪽 얼굴의 신화』는 그가 문화연구로 시야를 확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한 것인 바, 이 글은 광고와 매체를 통해 등장한 ‘성공인사’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 중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가 어떻게 단일화되어 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것(성공인사)은 공허하고 요원한 ‘대동(大同)’이나 ‘공산(共産)’ 세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 세계를 향유하는 살아 숨 쉬는 남성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당신도 자동차와 집,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최면을 걸 듯 약속한다. 이것이 바로 참신한 몽상이며 중국적 특색이 잘 드러난 당대의 신화이다. 그것은 이미 당연하다는 듯이 철지난 ‘강국’의 꿈을 밀쳐내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체제 안팎의 각종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현대화’ 사상 속에 중심 위치로 올라섰다.⁴⁴⁾

왕샤오밍은 삶에 대한 중국인들의 욕구가 과거처럼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으며, 전통적 도덕의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풍요’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80년대 기본 생존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추구되었던 물질적 요구는, 뜨거웠으나 공식적으로 두둔할 수는 없었던 90년대의 ‘샤하이’ 열풍을 거쳐 2000년대에 이르렀다. 이제 물질은 사상과 정신의 해방, 문학과 예술에 대한 존중, 민주에 대한 갈망과 같은 다른 모든 가치들을 제치고 가장 실제적이고 유일한 욕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인들이 느끼는 수치심 역시 물질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인기작가 위화는 그의 장편소설 『형제(兄弟)』와 산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43) 왕샤오밍 지음, 김명희 외 옮김 (2014), p. 288.

44) 왕샤오밍 지음, 김명희 외 옮김 (2014), pp. 15-16.

빛보다 멀리 간다(十個詞彙裡的中國)』⁴⁵⁾를 통해 자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해가는 중국사회와 가치관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출판된 『형제』와 『사람의 목소리...』는 모두 오늘날의 중국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비슷한 성격의 두 작품 중 왜 후자의 출판이 대륙에서 불가능한지를 묻는 타이완 기자의 질문에 위화는 허구와 비허구의 차이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주제는 동일하지만, 『형제』는 허구 작품이라 서술에서 우회적 표현이 가능하여 출판할 수 있는 반면, 『사람의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허구 작품이라 출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⁶⁾ 두 작품은 허구/비허구, 상징·풍자/객관적 사실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을 차용했으나, 중국의 혼돈과 치부, 과거와 현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들이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예술적 가치와 의미보다는 그 속에서 오늘날 중국인의 수치심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형제』는 위화가 『허삼관 매혈기』 이후 10년 만에 발표한 소설로 출간 직후부터 베스트셀러가 되더니, 일 년여 만에 110만권 이상이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⁴⁷⁾ 비평계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렸지만, 『형제』의 상업적 성공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었다. 위화는 자신이 이 작품에서 비로소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되었고 변화하는 시대를 정면으로 묘사하며 인물의 운명을 큰 줄거리로 삼아 시대와 인물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⁴⁸⁾

45) 본고에서는 대륙에서 출판된 『兄弟』(作家出版社, 2008)와 번역서 『형제』(휴머니스트, 2007), 역시 번역서인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문학동네, 2012)를 텍스트로 선택했다.

46)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2012), pp. 7-8.

47) 俞敏華 (2007), 「迷亂的在場與希望的缺失 — 解讀余華『兄弟』的精神價值趣向」, 『理論與創作』, 第4期: 86.

48) 余華·張英 (2005), 「余華: 『兄弟』這十年」, 『作家』, 第11期: 6.

『형제』는 류진(劉鎭)이라는 가공의 도시를 배경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혼을 통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가 된 송강(宋鋼)과 이광두(李光頭)를 주인공으로 하여 문혁과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사회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여자 화장실을 몰래 훔쳐보다 똥통에 빠져 죽은 생부를 닮아 일찍부터 성욕에 눈을 뜬 이광두는 상품경제시대의 대표적 욕망인 물욕과 성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개혁개방 초기, 스무 살의 이광두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복지공장의 공장장에 마음대로 부임하더니 첫 해부터 이윤을 창출해내기 시작한다. 자신의 뛰어난 사업수단을 맹신하여 의류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맛보긴 하나 그도 잠시, 곧이어 폐품 사업, 일본에서 들여온 헨 옷 장사를 통해 일약 거부가 된다. 사업상의 성공에 힘입어 이광두는 ‘현(縣)인민대표회의 대표’가 되고 ‘인민대표대회 상임의원’이 되어 류진의 수많은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데, 이 전형적인 권력과 자본의 결합은 이광두를 ‘천만장자’의 반열에 올려준다. 심혜영은 이광두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러시아 유명화가에게 그리게 한 그의 초상화가 천안문 성루에 걸린 모주석의 초상화만큼 크다는 묘사에 주목한다. 혁명과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의 영웅인 마오의 위상과 권력이 이제는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의 상징인 이광두에게로 넘겨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⁴⁹⁾이기 때문이다. 이광두의 막대한 재력은 류진을 ‘이광두진(李光頭鎭)’으로 불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류진의 주민들은 그가 주도하는 변화를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치부하는 이들과 이전의 생계방식을 고수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로 나누어진다.

정직하고 자상한 송범평(宋凡平)의 아들 송강은 “밥이 한 그릇밖에 없으면 꼭 광두를 먹고, 옷이 한 벌 남으면 광두를 입히는” 희생적인 형이다. 이광두와 송강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우리는 형제’라는 끈끈한 형제애를 나누지만, 류진 최고의 미녀 임홍(林紅)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고, 이후 상품경제의 격랑 속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여 천양지차의 삶을 살게 된다. 국영

49) 심혜영 (2008), p. 256.

금속공장의 직원으로 일하며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던 그는 갑작스런 공장 폐쇄로 실업자가 되고, 생계를 위해 하역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후 폐까지 망가져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광두에게 신세지는 것을 아내가 싫어한다고 여긴 그는 집을 떠나 주유(周游)라는 사기꾼과 함께 가짜 보건의용품을 팔러 다니다 돈벌이를 위해 인공 유방 확대수술을 받는 치욕까지 겪는다. 인공 유방 때문에 등이 굽고 수술부위가 붉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송강의 모습은 상품경제라는 대세에 합류하려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마저 불가능해진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한다.

송강의 아내이자 류진 모든 남성들의 로망인 임홍은 중국 인민을 상징한다. 개혁개방 초기, 저속하고 경박한 이광두(성욕·자본·물질)를 경멸하고, 자상하고 예의바르며 지적인 송강(윤리·지성·정신)을 선택했던 그녀는, 갈수록 심해지는 실업에 대한 불안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괴로워하다, 자신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준 이광두에게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열게 된다. 위화는 이광두에 대한 임홍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자본이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정을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폐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치료비를 몰래 대주는 이광두는 그녀에게 “애초 그렇게 혐오할 필요는 없었던” 괜찮은 남자로 인식되며, 훗날 그와의 육체관계가 거듭된 이후에는 “자기 몸속에 얼마나 강렬한 욕망이 숨어 있었는지 발견하게” 해준다.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몸은 매일 이광두를 갈망하게 된 임홍의 갈등은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물질주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갈수록 깊이 빠져드는 중국 인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상품경제 시대의 새로운 영웅 이광두가 초상화 제막식에 당이나 정부 요인, 유엔 사무총장을 초대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추측과는 달리, 첫사랑 임홍 한 사람만을 초대한 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본’이 ‘인민’을 정복하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준다.

『형제』는 상품경제의 파괴적인 힘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힘은 류진 주민들의 생활 전반—직업 선택, 주거환경, 사람에 대한 평가, 성 관념

등을 바꾸어 놓는다.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품경제 체제 하에서 도덕적 차원의 수치심은 무너지고 물질적 차원의 수치심은 강화된다는 점이다. 수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해봤지만, 단 한 명의 처녀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광두가 자신의 경험과 사업적 발상을 결합시켜 류진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처녀미인대회’는 자본의 힘이 도덕적 수치심을 어느 정도까지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대회 개최의 명목상 취지는 “조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 동시에 오늘날의 여성들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전국에서 몰려든 수 천 명의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내내 심사위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후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하거나 인공 처녀막을 구입하느라 북새통을 이룬다. 참가자들이 지불하는 숙박비, 대회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지불하는 입장료와 교통비, 대회 후원 광고비, 처녀막 관련 상품 판매비 등으로 류진의 경제는 활기를 띠고 주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나, 이 대회의 도덕적 타락과 허위의식을 지탄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처녀미인’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쇄도하는 인터뷰에 당당히 응하면서 “자신이 두 살배기 아기의 엄마”이지만, “정신적 처녀의 순결성을 간직하고 있는 한 자신은 영원한 처녀”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거짓말, 사기, 성적 타락이 판을 치나, 대회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만 위안에 달하는 고액의 우승상금과 연예계 진출의 기회이며, 대회 주최측 인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익, 광고 효과, 그리고 다양한 여성들과 누리는 성적 쾌락이다. 더 많은 돈과 성의 유혹 앞에서 도덕적 수치심은 설 자리를 잃고, 양심과 윤리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실직 이후 허리를 다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던 송강의 일상은 사회구조적 이유 때문에 빈곤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 느끼는 수치심을 보여준다. 그는 일 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 백방으로 애쓰지만, 돈 벌 기회를 찾지 못한다. 애 쓴 보람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부끄러움

가득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 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추면 또다시 가슴 가득히 믿음을 품은 채 집을 나섰다.” 아내에게 당당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가 가장 난처할 때는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번 돈이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어 건네주기조차 부끄러울 때”이다. 그럴 때면 임홍은 “비통한 마음으로 그 손길을 외면하며”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라고 답한다. 아내 역시 송강과 동일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무도 속이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지만, 송강의 정직과 진심은 금전의 벽 앞에서 힘을 잃고 만다.

『형제』가 문혁과 개혁개방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중국인들의 가치관이 극에서 극으로 옮겨간 것을 상징과 풍자를 뒤섞어 보여주고 있다면, 『사람의 목소리...』는 객관적 자료 인용과 사실의 기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위화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정치체제 개혁은 완전히 정제되고 경제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 중국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살벌하게 변모했는지를 지적한다.

극심한 경쟁과 거대한 압력이 수많은 중국인의 생활과 생존을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는 자연스레 약육강식의 논리와 함께 호화스러운 사치 추구하고 온갖 부당한 속임수가 유행한다. 따라서 자신의 본분에 만족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도태되고 답이 큰 사람들만 성공한다. 가치관의 변화와 재화의 재분배가 사회분열을 조성하고 사회분열은 사회충돌을 가져온다.⁵⁰⁾

위화는 중국이 이룩한 30년 경제기적의 비밀 중 하나를 평범한 인민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풀뿌리 정신으로 경제발전의 기회를 포착한 것”⁵¹⁾이라 파악하며,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50)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2012), p. 56.

소개한다. 인민폐 1억 위안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를 가장 먼저 구입한 매혈 사업자, 소규모 수거상들에게서 사들인 폐품의 가격을 최대한 올려 다른 기업에 되팔아 수천만 위안의 거부가 된 ‘쓰레기 대왕’, 작은 전자기기 회사에서 출발하여 10여 년 만에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회사를 일구어냈다가 불법 경영죄, 내부 거래죄, 일방적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언도받은 귀메이(國美)회사의 창립자, 공산당과 공청단의 지부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아가씨들이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시켜 엄청난 매상을 올리는 매춘업소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치부를 위해 법률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적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는 과정상의 문제는 모두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달라져버린 오늘날의 중국을 바라보며 위화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많은 이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共感)을 상실한 점이다. 2009년 2월 밴쿠버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강연 중 2006년 중국에서 연간 수입이 800위안밖에 안 되는 빈민 인구가 1억 명에 달한다는 위화의 말을 듣고 “돈은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한 중국 유학생의 발언은 많은 중국인들이 이웃의 아픔에 대해 얼마만큼 둔감해졌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아마도 위화가 외국인들 앞에서 이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조국의 위상을 빈민 인구 운운하며 깎아내리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가 느꼈을 감정은,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극빈 상태로 방치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전히 중국을 선진 대국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인 셈이다. 그는 경제대국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을 오히려 물질과 금전을 초월한 듯한 말투로 드러냈고, 위화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 중국 유학생의 한마디를 듣자 나는 몸이 떨려왔다. 이는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일부 중국인 집단이 내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이미지에 폭 빠져 아직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나는 중국인의 진정한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빈곤과 기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빈곤과 기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⁵²⁾

21세기 중국에서는 인민의 기본 생존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괴로워했던 『하상』 식의 부끄러움은 희미해지고, 과정상의 정직함과 상관없는 결과로서의 물질적 ‘빈곤’이 부끄러움을 형성하며, 타자와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가 타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은 극한까지 추구하는 새로운 세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극단적으로 결핍된 시대에서 낭비가 넘치는 시대로, 정치 지상의 시대에서 금전 제일의 시대로, 본능이 억압된 시대에서 욕망이 넘치는 시대로”⁵³⁾ 넘어온 오늘날 중국에서 도덕적 수치심이 약화되고 물질적 차원에서 느끼는 수치심이 극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V. 나오며:

성공, 부끄러움을 넘어서다

다시 귀징밍과 그의 팬들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자.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지식인들과 순수문학 애호가들의 비판과 질시가 얼마나 혹독하던 상관없이 ‘귀징밍’ 산업의 흥행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이다. 2006년부터 그가 편집을

52)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2012), pp. 214-215.

53)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2012), p. 194.

맡은 청춘문학잡지 『최소설(最小說)』은 매 회 50여 만부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2008-2009년 10대 중국문학기간물’ 선정 행사에서는 6835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⁵⁴⁾ 작품과 간행물이 실 새 없이 팔려나간 덕에 귀징밍은 2006년부터 시행된 ‘중국작가부호순위(中國作家富豪榜)’에서 줄곧 상위권에 링크되는 위엄을 보였으며,⁵⁵⁾ 2010년에는 『수확(收穫)』 春夏권 장편소설 특집호에 『임계·작적(臨界·爵迹)』을 발표하여 순수문학의 수호자 역할을 하던 『수확』마저 상업화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야기하기도 했다. 술한 시시비비 속에서도 귀징밍은 활동범위를 넓혀 직접 메가폰을 잡고 자신의 소설 『소시대(小時代)』를 영화로 제작했는데, 2013년 6월 말과 8월 초, 한 달 여 간격으로 개봉된 『소시대』 1, 2편은 평론가들의 혹평과 네티즌의 낮은 평점에도 불구하고 약 8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거두어⁵⁶⁾ 영화계 인사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2014년 7월 개봉한 『소시대』 3편의 최종수익은 5억 2천 위안, 2015년 7월 개봉한 4편의 수익은 4억 8천 7백만 위안에 이르러⁵⁷⁾ 언론매체조차도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가 왜 흥행하는지 모르겠다”⁵⁸⁾고 공공연하게 하소연할 정도였다. 이쯤 되면 문화재벌 귀징밍,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산업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영화 『소시대』 제1편이 개봉되어 흥행과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었던 2013년 여름, 귀징밍을 작가협회 정식회원으로 추천했던 왕멍은 『소시대』가

54) 이 행사에서 대표적인 순수문학 간행물인 『收穫』은 159표를 얻어 6위를 차지했다. 李陽 (2011), 『『萌芽』의轉型與郭敬明的出現』, 『當代作家評論』, 第1期: 127 참조.

55) ‘중국작가부호순위’에서 귀징밍은 2006년 5위, 2007·2008·2011년 1위, 2009·2010년 2위, 2012년 4위, 2013년 8위에 올라있다. 百度百科 참조.

56) 「2013電影票房已超180億 小成本電影‘崛起’」, 『齊魯晚報』, 2013年 11月 14日.

57) 電影票房 사이트 참조(<http://58921.com/alltime>).

58) 「電影小時代系列票房破二十億 小時代爲甚麼是爛片還這麼火」, 『尚之潮』, 2015年 7月 22日.

“예술적인 작품이 아니라 모종의 문학소비를 고려한” 작품이므로 현실주의적 각도나 문학의 예술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⁵⁹⁾ 이는 과거 작가협회가 귀징밍을 받아들인 이유 역시 문학성이 아니라 상업적 성공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형제』의 거부 이광두도 부러워할 정도의 문화재벌이 된 귀징밍에게 8, 90년대 지식인들이 보여주었던 도덕적 수치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의 성공은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로 작동한다. 『소시대』 4편이 흥행몰이를 하던 2015년 7월, 『中國新聞週刊』은 귀징밍과의 인터뷰에서 작성한 듯, 중국사회발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갈등과 빈부격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공공지식인으로서 사회 비판적 역할을 담당할 생각은 없는지 등의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그때마다 귀징밍은 “나 자신이나 『소시대』는 (빈부격차 같은 문제의) 갈등의 근원이 아니다”, “나는 (비판적 지식인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에 익숙하지 못하고” 비판적 지식인들이 “사회현상, 권력 구조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선명한 관점을 가진 것”에 반해 “나의 관념과 관점이 정확한지 스스로 잘 모른다”라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은 자신과 상관없는 영역임을 밝혔다. 귀징밍은 “한 국가의 정치구조 하에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이 자기처럼 “보잘 것 없는 일개 작가에게 까지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어느 국가의 정부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 현재 중국 정부 역시 나라가 죽든 말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크다 보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옹호도 잊지 않는다. 당신의 재력으로 사회를 더욱 공평하게 하는데 기여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는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그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59) 「王蒙力讚郭敬明與金庸作品無人能比」, 『新浪娛樂』, 2013年 7月 28日.

자수성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얻어 가정을 꾸리고 집과 차를 사며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매우 평범한 내용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수 엘리트 교수들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지만, “전혀 틀리지 않은 소박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⁶⁰⁾

귀징밍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엄격하게 통제되나, 경제적으로는 끝없는 부의 축적이 용납되는 중국에서 상업문학 작가이자 사업가인 스스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화 아이콘이자 재벌인 자신을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고 영향력을 미칠 능력도 없는, 즉 정치적으로 전혀 위협하지 않은 “일개 작가”로 낮추고, 이제까지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분투에 의한 것일 뿐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죄는 아니다”라는 대중에게 친숙한 표현들을 빌어 그는 90년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 격차와 사회적 갈등,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교묘히 은폐시켜 버린다. 체제의 그 어떤 금기도 건드릴 생각이 없고, 시장경제가 부여한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귀징밍에게 표절에 대한 수치심은 존재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의 상업적 성공이 과정상의 도덕적 결함을 모두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귀징밍을 향한 팬들의 지지와 열광은 이들이 서로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징밍 키즈가 21세기 중국인 혹은 젊은 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귀징밍 산업의 지칠 줄 모르는 흥행은 중국 사회가 이미 이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전통 지식인의 우환의식을 계승했던 80년대의 부끄러움은 이제 소수 엘리트

60) 「我和郭敬明聊了聊貧富差距，特權，體制，富二代，死亡和孤獨」，《中國新聞週刊》，2015년 7월 13일.

지식인의 전유물로 인식되며, 물질에 대한 욕구를 솔직하게 공개할 수 없었던 90년대 지식인의 자존심은 귀징밍이 주도하는 각종 ‘문화’ 시상식에 참여하여 팬들의 환호를 나눠 갖는 대담함으로 바뀌었다.⁶¹⁾

고속경제성장의 거품이 점차 꺼져가고 국내소비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취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세계경제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중국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가져왔듯이, 앞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 혹은 부활은 또 다른 변화들을 야기할 것이다. 그 변화들은 중국인들의 수치심을 다시 어디로 옮겨 놓을까? 중국인들은 위화가 고대하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며 이웃의 빈곤에 대한 자신들의 무관심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도덕적 수치심에 무감각해지고 물질적 수치심에 민감하게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묘연하다. 그러나 갈수록 자본의 역량이 증폭되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위 질문들에 대한 낙관적인 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글쓰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⁶²⁾라고 한 위화의 고백이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면서도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해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현실 때문일 것이다.

61) 왕샤오밍 지음, 김명희 외 옮김 (2014), p. 248.

62)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2012), p. 353.

참고문헌

- 심혜영 (2008), 「위화의 『형제』와 ‘두 공간’의 공존」, 『중국현대문학』, 45: 241-269.
- 이문기 (2009), 「중국 지식인과 국가관계의 변천: 체제 수호세력인가 시민사회 추동세력인가?」, 『중국학연구』, 47: 187-216.
- 이성규 (1996), 「현대 중국 지식인의 위상」, 『지역연구』, 5(1): 117-160.
- 이희경 (2014), 「귀징밍 현상과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 『중국현대문학』, 69: 85-113.
- 샤오메이 천 지음, 정진배·김경아 옮김 (2001), 『옥시덴탈리즘』, 서울: 강.
-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옮김 (1989), 『河殤』, 서울: 동문선.
- 왕샤오밍 지음, 김명희 외 옮김 (2014),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서울: 문화과학사.
- 왕효명(王曉明) 외 지음, 백원담 편역(1999), 『인문학의 위기』, 경기도: 푸른 숲.
- 위화 지음, 최용만 옮김 (2007), 『형제』, 서울: 휴머니스트.
- 위화 지음, 김태성 옮김 (2012),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경기도: 문학동네.
- 첸리쥘 (2013), 「지금 여기의 루쉰」, 이창휘·박민희 엮음, 『중국을 인터뷰하다』, pp. 13-53, 경기도: 창비.
- 解放軍政治學院資料室·解放軍報編輯部 編寫 (1981),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名詞解釋』, 長征出版社.
- 巴金 (1980), 『隨想錄第一集』, 人民文學出版社.
- ____ (1981), 『探索集(隨想錄第二集)』, 人民文學出版社.
- ____ (1983), 『隨想錄第三集』, 人民文學出版社.
- 上海巴金文學研究會 編 (2008), 『細讀隨想錄』,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陳堅·陳抗 (1998), 『夏衍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 蘇曉康 (1989), 『自由備忘錄: 蘇曉康報告文學精選』, 香港: 三聯書店.
- 胡適 (1998), 『胡適文集』 第5集, 北京大學出版社.
- 毛澤東 (1991), 『毛澤東選集』 第3卷, 人民出版社.
- 余華 (2008), 『兄弟』, 作家出版社.

俞敏華 (2007), 「迷亂的在場與希望的缺失 — 解讀余華『兄弟』的精神價值趣向」, 『理論與創作』, 第4期.

李陽 (2011), 「『萌芽』的轉型與郭敬明的出現」, 『當代作家評論』, 第1期.

「郭敬明被判抄襲拒不低頭 莊羽“強行”索要道歉」, 『華商報』, 2006年 6月 17日

「郭敬明回應抄襲一案 明確表態絕不道歉」, 『新華網綜合』, 2006年6月7日

「郭敬明正式加入中國作協」, 『京華時報』, 2007年 9月 25日, 第29版

余華·張英 (2005), 「余華: 『兄弟』這十年」, 『作家』, 2005年 第11期

「2013電影票房已超180億 小成本電影‘崛起」」, 『齊魯晚報』, 2013年 11月 14日

「電影小時代系列票房破二十億 小時代為甚麼是爛片還這麼火」, 『尚之潮』, 2015年 7月 22日

「王蒙力讚郭敬明與金庸作品無人能比」, 『新浪娛樂』, 2013年 7月 28日

「我和郭敬明聊了聊貧富差距, 特權, 體制, 富二代, 死亡和孤獨」, 『中國新聞週刊』, 2015年 7月 13日

電影票房 <http://58921.com/alltime>, (검색일: 2016. 04. 05.)

Abstract

Since its reform and openness, China has gone through extreme changes, including the people's sense of values and emotion. In the 1980s, most people thought they were the victims of history. However, through his essay *Sui Xiang Lu(Random Thoughts)*, Ba Jin admitted that he felt shame, as he was partly responsible for historical tragedy like the Cultural Revolution. The documentary *He Shang(River Elegy)* had shown the shame caused by the awareness of reality that China did not accept western modernization and remained weak. In 1990s,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created a boom for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 In those days, some of the intellectuals criticized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intellectual circles, and agitated the recovery of "humanistic spirit". Their claims gained sympathy of many people, but they were obstructed as they approached the problem of existence of the intellectuals only with morals and not from the aspect of the social structure. As the Chinese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ercialized in the 21st century, the desire for material wealth has defeated the moral values and has actually become the only aspiration. Through Yu Hua's novel *Brother* and his essay *China in Ten Words*, we can find that material possessions became the only criterion for feeling shame in China.

【Keywords】 Shame, Sui Xiang Lu(Random Thoughts), He Shang(River Elegy), Humanistic Spirit, Yu Hua, Guo Jingming

논문 투고일: 2016. 8. 30

심사 완료일: 2016. 10. 12

게재 확정일: 2016. 10. 12